

현행 여자 상복의 종류와 디자인 분석 및 제안

이춘희 · 강혜승⁺*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산업디자인학과 박사과정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교수⁺*

The Analysis and Proposal for Current Types and Designs of Women's Mourning Dresses

Choon-Hee Lee · Heaseung Kang⁺*

Doctoral Program in Fashion Industrial Design, Dankook University
Prof., School of Fashion Industrial Design, Dankook University⁺*

(2015. 12. 10 접수; 2016. 1. 25 수정; 2016. 1. 29 채택)

Abstract

A mourning dress is the formal costume that the mourners wear to show civility during the mourning. Traditional funeral rites are the Confucianism's funeral proceeding where the mourners wear according to the National Mourning Dresses System. However, nowadays, the funeral proceedings and mourning dresses are simplified. In result of current design analysis of the mourning dresses for women, the types of the mourning dresses for women are classified by traditional styles and modern styles. Traditional styles include skirts and Jeogori made of hemp fabrics, and modern styles include skirts and Jeogori style, modernized Hanbok style, and Western style, which consist of cardigan, waist skirts, jackets, and pants. The modern styles mostly use polyester and the color consists mainly of black and white. The followings propose new designs of mourning dress for women that reflect practicality, flexibility, and diversity. First, transmit the meaning that traditional mourning dress entails. Second, change the length and the width of Jeogori and skirt by reflecting the trend of the time and change the designs of the mourning dresses by using the details of the modern styles so that they are equipped with practicality, flexibility, and affordability. Third, pursue diversity by changing the uniformed fabrics and colors used on the existing mourning dresses. This study addresses the drawbacks and the points that need be improved to suggest the designs of the modern mourning dress for women,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Hanbok and cultural traits.

Key Words: Funeral rites(상례), National mourning dresses system(오복제도), Women's mourning dresses(대수장군), Analysis of current mourning dresses for women(현행 여자 상복 분석), Design development for women's mourning dresses (여자 상복디자인 개발)

+Corresponding author: Heaseung Kang
Tel. +82-31-8005-3131, Fax. +82-31-8021-7195
E-Mail: hsk0405@dankook.ac.kr

I. 서론

1. 연구목적

상례(喪禮)는 상중(喪中)에 고인을 장사지낼 때 행해지는 모든 의례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관행되고 있는 유교식 상례는 전통 상례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유교식 상례 절차 중 성복(成服)은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복제(服制-상례에서 정한 오복의 제도)를 맞추어 입는 것이다. 오복 제도는 고인과의 친소원근(親疎遠近)의 가족관계에 따라 상복을 다섯 가지로 구별하여 입는 제도이며, 상기(喪期)의 길고 짧음을 결정한다. 현대 상례는 3일장을 기본으로 하며 둘째 날 상복을 입는다. 상제(喪制-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服人-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이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나, 돌아가신 직후 상복을 입기기도 한다(보건복지부). 유교식 상례는 주희의 가례(家禮)를 기본으로 여러 예서(禮書)들의 준칙에 따라 관행되고 있으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34년 의례준칙을 공포, 오복제도를 생략하고, 여성의 양장에 리본을 하도록 규정하여 의례를 간소화했다. 1969년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공포, 성복제, 굴건제복착용을 폐지하여 상례를 간소화 하였고, 2008년 전면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흰색 한복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2012년 8월 보건복지부는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 상담과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종합적인 장례절차를 주관하며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듯 상례문화가 가족 구성원의 변화, 현대 사회의 변화, 관습과 종교, 가문, 시대에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상복도 간소화 되고 있다.

상복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상복의 변화, 상징적 의미, 상복의 비교, 전통상복의 재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상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자가례 정착화에 따른 상복의 변화(권이순, 2002),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행 상복의 변화와 전통 상복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윤은영, 2004), 한국 전

통 상복과 현대 상복의 변화(정혜린, 2004) 등이 있다. 상복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유교사상의 이념이 함축된 전통상복의 구성과 상기, 상복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고찰(한상일, 2011), 관혼상제 때에 착용하는 의례복식의 상징요소(이영임, 2005), 상복의 구성형태를 통한 상징성 연구(정옥임, 2004)가 있다. 상복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 상복을 문헌과 실물을 비교(조우현, 1990), 문헌을 기초로 한 상례복과 일반적인 상복에 대한 비교(손경희, 2001)가 있다. 전통 상복 재현에 관한 연구는 사례편람 상복 제작법으로 실물제작을 연구(김은정, 2006), 예서에 나타난 의례복식 취의, 최상, 대수장군 등을 재현(김기상, 2014)한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전통 상복에 관한 연구와 상복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대 상례에 적합한 상복 디자인 제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 여자 상복의 종류와 디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보완하여 현대 상례에 적용할 수 있는 여자 상복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첫째, 이론적 배경은 문헌과 선행 연구를 통해 오복제도와 여자 상복 및 의미를 알아본다.

둘째, 현행 여자 상복의 디자인 및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에서 구축한 장사정보 시스템과, 전국 상조 소비자협동조합이 제시한 상조회사 온라인 쇼핑몰 자료를 2015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검색 후 분석하여 현재 보급하고 있는 여자 상복의 종류를 분류한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서울권 14개 병원 중 규모가 큰 병원장례식장 3곳을 선정하고,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후 판매되고 있는 여자 상복의 디자인을 A, B, C 장례식장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현행 여자 상복 디자인은 상의와 하의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의를 저고리, 하의를 치마와 바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복의 분류에 있어, 남자의 굴건제복, 여자의 대수장군과 같이 삼베로 제작된 상복을 전통식 상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현대

식 상복은 한복 형, 개량 한복 형, 양장 형으로 구분한다. 치마, 저고리 형의 저고리는 깃과 섶이 달리고 평면 재단으로 제작되었으며, 치마는 겹자락 안자락이 구분되는 자락치마 형태이다. 개량 형은 한복을 변형 시킨 저고리와 통치마이며, 양장 형은 카디건과 허리치마, 자켓과 바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여자 상복의 형태와 디자인을 분석 한 후, 현행 상복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현대 상례에 적합한 여자 상복 디자인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오복(五服)제도

오복제도는 참취(斬衰), 자취(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로 구분하고, 오복(五服)은 상복의 재질과 봉제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 입는 상복(喪服)이다. 유교적 상례 절차는 초종(初終), 염습(殮襲), 소렴(小殮), 대렴(大斂), 성복(成服), 치장(治粧), 천구(遷柩), 발인(發柩),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祔),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의 절차가 있으며. 이중 성복(成服)은 복인과 상주(喪主)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상주임을 알리며, 예를 갖추어 상복을 입는 것이다. 고인과의 친소관계(親疎關係)에 따라 상기(喪期)에 맞추어 입는 오복제도는 다음과 같다.

참취(斬衰)는 아들이 아버지 상에 입는 것이며, 윗옷과 치마는 굵은 생포를 사용하며 아랫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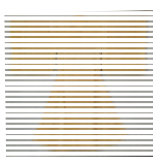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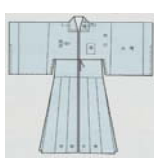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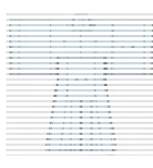
옆을 꿰매지 않으며, 부판은 등에 최는 가슴에 있다. 복상기간은 3년이다. 자취(齊衰)는 아들이 어머니의 상에 입는 것이며, 굵은 생포를 사용하여 옆과 아랫단을 꿰매어 상복을 만들며, 복상기간은 3년이다. 대공(大功)은 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이 입는 것이며, 조금 굵은 삶은 베를 사용하며, 부판과 최와 벽령은 없다. 복상기간은 9개월이다. 소공(小功)은 조(祖)의 형제, 자매, 형제의 손자, 종조형제. 자매, 종모 등이 입으며 조금 삶은 가는 베를 사용하여 만들며 복상기간은 5개월이다. 시마(緦麻)는 증조의 형제와 자매, 6촌 종손, 종조형제의 자식, 증손과 현손, 외손 등이 입으며 아주 가는 삶은 베를 사용하고 복상 기간은 3개월이다(임민혁, 1999). 오복제도는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봉제 방법과 삼베의 재질이 각기 다른 상복을 착용하고 효와 슬픔의 표현을 복식에 표현했으나 복잡한 용어와 제작 방식이 현대 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2. 여자 상복의 종류

1) 전통 여자 상복

여자 상복으로는 대수장군, 홀저고리, 치마, 수질(머리에 두르는 새끼줄 모양의 테), 요질(허리에 두르는 새끼줄 모양의 테), 엄신, 죽장, 말(襪-버선), 백죽두리(白簇頭里), 요질, 죽잡(竹簪)이 있다. 미혼여자는 광목치마, 저고리에 중단을 입고 마포보해 수질을 쓰며 요질을 띠고 엄신을 신는다. 기혼여자는 광목치마, 저고리, 대수장군, 백죽두리, 수질, 요대, 요질, 엄신을 신는다. 대수장군은 대수(大袖-저고리)와 장군(長裙-치마)을 합한 것으로 소매가 넓은 상의(上衣)에 좌우

〈표 1〉 전통 여자 상복

	미혼여자	기혼여자	대수장군(앞. 뒤)		대수장군 부분 명칭	
이미지						
	(출처: 아름다운 우리옷 (1994.NOV))		(출처: 전통한복구성학)			

3폭씩 12폭의 상(裳)을 붙인 것이다. 부분별 명칭은 쇠(衰), 적(適), 가령(加領), 의신, 부판(負板)이며 <표 1>은 미혼과 기혼 여자의 상복과 대수장군의 이미지이다(박선영, 2001).

본 연구에서는 상복으로 입는 저고리 치마는 다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여자 상복 중 효의 의미가 담겨있는 대수장군에 대해서 살펴본다. 대수장군 앞가슴에 쇠(衰)는 효자의 애절함을 표현하고, 그 애절함이 몸과 마음에 그치지 않음을 표현했다. 부판(負板)이 뒤에 있음은 등에 짐을 진 것 같이 슬픔을 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벽령이 좌우에 있는 것은 효자에게 있어 슬픈 마음이 없는 곳이 없다는 의미가 있다. 상복을 제작 할 때 옷의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고 자른 대로 놓고, 시접을 접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슬픔의 극한 상태를 밖으로 표현함이다(임민혁, 1999). 어머니 상에서 상복의 시접 끝을 자른 채로 두고 시접을 안으로 넘기는 것은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 잃은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가리려는 의미이다. 친등(親等)관계에 따라 상복 소재의 조직의 성긴 정도를 다르게 하여 슬픔의 정도에 차이를 두기도 했다. 상복은 상을 당했음을 알리는 것 외에도 민족성과 감정, 친등관계 등 내재된 상징을 상복 구성을 통해 나타냈다(정옥임, 2004).

2) 현행 여자 상복

상조업체와 병원 장례식장에 제시된 상복 이미지를 2015년 4월과 10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검색 하여 현행 여자 상복을 전통식과 현대식으

로 구분하여 <표 2>로 제시한다. 전통식 상복은 삼베로 제작된 치마, 저고리 형태이며 딸과 며느리의 구분을 위해 며느리가 착용하는 복 조각이 있다. 현대식으로는 치마, 저고리 형과 개량한복 형, 카디건과 허리치마, 자켓과 바지로 구분한 양장 형이 있다. 전통식과 현대식의 치마, 저고리 형은 짧은 저고리와 어깨허리가 달린 긴 치마 형태이며, 현대식의 개량 형은 저고리와 허리치마, 양장 형은 카디건과 자켓, 허리치마와 바지이다. 전통식 여자 상복은 삼베를 염색하지 않은 순색을 사용 하고, 현대식 여자 상복은 치마, 저고리 형에서 흰색과 검정색을 사용하고 있다. 삼베로 만든 전통식 상복은 찾는 소비자가 드문 실정이다.

Ⅲ. 현행 여자 상복 디자인 분석 및 제안

1. 여자 상복 디자인 분석

장례식장 A, B, C곳의 여자 상복은 55-88 사이 즈별로 기성복 화 되어 있고, 상복의 색상은 검은색이 대부분이며, 치마, 저고리 형 상복만 흰색이 있다. 소재는 모두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사용 하였다. 저고리 형은 길, 싹, 깃, 동정, 소매, 끝동, 고름으로 구성된 겹저고리로 둥근 깃 형태이며, 여밈은 고름과 벌크로가 혼용되어 있다. 개량 형 상복은 홑저고리로 싹은 없고 끝동이 있으며 깃은 맞깃 형태이고 동정이 있다. 저고리의

<표 2> 현행 여자 상복

형식	전통식		현대식		
	한복 형		개량한복 형	양장 형	
	치마. 저고리			카디건. 치마	자켓. 바지
이미지					
(출처: http://www.boram.com/product/funeral/premium490.do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funerals/service.do?view=mourning)					

〈표 3〉 여자 상복 저고리 형태 분석

형태	길이(cm)	섶	여밈	깃	동정	안감	끝동	색상	소재	
A	저고리 형	38~40	유	고름/벌크로	유	유	유	유	검정, 흰색	폴리에스테르
	양장 형	카디건, 자켓						검정	폴리에스테르	
B	저고리 형	38~40	유	고름/벌크로	유	유	유	유	검정, 흰색	폴리에스테르
	개량 형	41~61	무	단추	맞깃	유	무	유	검정	폴리에스테르
C	저고리 형	38~40	유	고름	유	유	유	무	검정, 흰색	폴리에스테르
	개량 형	42~61	무	단추	맞깃	유	무	유	검정	폴리에스테르

〈표 4〉 여자 상복 치마 형태 분석

형태	길이(cm)	스타일	치마폭	주름넓이	말기	안감	색상	소재	
A	자락치마형	100~130	자락치마	2폭 150	4~5	조끼	유	검정, 흰색	폴리에스테르
	양장 형	70~82	양장 형	-	무	벨트	유	검정	폴리에스테르
B	자락치마형	100~130	자락치마	2폭 150	4~5	조끼	유	검정, 흰색	폴리에스테르
	개량 형	85~102	통치마	85~105	4~5	벨트	무	검정	폴리에스테르
C	자락치마형	100~130	자락치마	2폭 150	8~9	일자	유	검정, 흰색	폴리에스테르
	개량 형	85~102	통치마	85~105	4~5	벨트	무	검정	폴리에스테르

여밈은 단추로 되어 있다. 자락치마 형은 안감이 있는 2폭 치마로 길이는 100~130cm이다. 말기는 일자형과 조끼 형이 있고 끈이 있으나 벌크로가 부착되어 있다. 치마 주름은 4~5cm 넓이와 8~9cm 넓이의 외주름 형태로 주름간격이 일정치 않다. 개량 형은 85~105cm폭의 통치마로 길이는 85~103cm 정도이며, 허리 벨트 양 옆에 고무줄이 있고 지퍼를 달았다. 주름은 4~5cm 넓이의 외주름 형태이다. 여자 상복 치마허리에 고무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저고리의 여밈은 단추나 벌크로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이 고름을 매는 방법이 서툰 경향이 있고, 고름이 잘 풀어져 사용자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상복의 소재를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것은 상복을 일회용으로 여기며, 상복 제작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이다. 또한 치마의 폭이 좁고, 주름이 일정치 않고, 바느질 형태가 거친 것은 한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식 상복의 형태와 구성에 따른 의미가 사라지고, 현대식 상복으로 치마, 저고리 형태와 한복을 변형한 형태, 현대적인 양장 형태로 다소 변화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판매 하고 있는 여자 상복 형태를 분석하여 〈표 3〉과 〈표 4〉와 같이 제시 했다.

2. 여자 상복 디자인 제안

현대에는 장례가 3일장으로 보편화 되어 상복을 입는 기간이 짧고, 상복을 벗고 일상으로 되돌아가 사회 활동에 바로 적응해야 한다. 상복(喪服)의 복제(服制)를 계승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으나, 전통 상복의 복제(服制)가 복잡하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복제에 맞춘 상복의 제작도 현실성이 없어 실용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형태와 소재, 색상 등에 상징성, 장식성, 활동성, 실용성, 경제성, 다양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대적인 여자 상복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 상복이 가지는 의미 전달을 포함한다. 아버지 상에 대나무 상징으로 모친상에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상징을 달리 사용하고, 상복을 제작할 때 단을 접거나 풀어서 내, 외를 표현하였다. 부판과 눈물받이 등을 상복에 부착하여 슬픔을 표현 했듯이 효(孝), 애(哀), 경(敬), 애(愛) 등의 염원(念願)을 한국적 전통 문양으로 상복에 표현 한다. 문양은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문자문 등 여러 가지 소재에 따라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상복에서는 하나의 소재만 사용하


기보다 여러 소재를 복합시켜 나염과 자수 등으로 내면적인 상징이 외적으로 표현되게 하며, 한복의 끝동과 깃, 치마 단, 거들지, 끈 등 부분 구성에 표현 되도록 한다.

둘째, 시대성을 반영한다. 본 연구자는 상복 디자인에 있어서 한복 저고리에 양장 패턴의 암울을 도입하여 한복의 평면 구성에서 입체적 구성으로 변화를 주고자 한다. 저고리의 깃은 절개선을 활용하여 깃과 같은 효과를 표현하며, 원피스 형태의 상복은 소매 달린 것과 소매 없는 형으로 구분하여 디자인 한다. 치마 주름은 외주름과 게더의 형태로 주름에 변화를 주며, 주름 없는 형태로 응용하며, 치마의 폭을 줄이고, 길이를 중앙 아래길이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활동에 편리하도록 한다. 허리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고무줄을 사용 하거나 단추, 매듭, 지퍼, 주머니 등 현대적 아이템을 활용하여, 착장방법을 단순화하며 탈의가 용이하도록 편리성을 갖추도록

한다. 상복 하의로 치마와 폭 넓은 바지를 만든다. 폭 넓은 바지는 단에 주름을 잡아 부리를 오그려 활동성을 준다. 상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상중에 입고 탈상 후 폐기하며, 일부 장의 업체는 상복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반납 후 세탁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다시 대여 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상복을 상중에 착용하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일가친척의 장례식에 문상(問喪)할 때 입을 수 있도록 하며, 이중 깃, 고름, 거들지, 끈 등이 탈부착이 가능 하도록 하고 상복 디자인을 전통 한복의 미적 특성을 현대화 하여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경제성을 갖춘 상복이 되도록 한다.

셋째, 다양성을 추구하여 획일화된 소재와 색톤에 변화를 시도한다. 적절한 소재의 선택은 외관상 단정함을 주며, 소재의 변화는 단조로운 상복의 디자인을 새롭게 창출 시킬 수 있으므로 친환경 소재, 혼방소재, 울 소재, 삼베, 전통한복

<표 5> 현대적 여자 상복 디자인 계획표

	디자인 I	디자인 II	디자인 III	디자인 IV	디자인 V	디자인 VI	디자인 VII
형태							
색상	FFFFFF 6D6D6D 000000	FFFFFF 7F7F7F 000000	FFFFFF 000000 000000	FFFFFF DCDCDC FFFFFF	FFFFFF FFFFFF 2E2E2E	E7E7E7 6E6E6E 000000	FFFFFF 2E2E2E 808080
소재	무명 삼베	명주 수직실크	모직 레이온 폴리에스터	시어서커	마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모직 레이온 폴리우레탄	레이온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문양	활용범위	깃, 거들지, 끈, 치마단, 고름 등			기법	자수, 염색, 아플리케 등으로 문양의 소재를 복합시켜 표현	
	상징분류	수복장수: 소나무, 박쥐, 거북, 바위 영원불멸: 물, 돌, 무생물 절개: 대나무, 매화 기타: 문자문(文字文), 자연산수문, 인공물문(人工物文)					
디테일	깃, 주머니 끝동, 매듭, 고름, 끈	깃, 주머니, 지퍼, 고름, 치마트임.	깃, 고름, 거들지, 매듭단추	깃, 주머니, 매듭, 벨트, 고름	프리센스라 인, 주머니, 깃, 매듭	깃, 주머니, 샤링, 매듭, 바이어스	깃, 주머니, 장식 상징, 지퍼

소재 등을 사용하거나 디자인의 변화를 주기 위해 다른 소재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상주와 상례는 장례기간에 상복을 바꾸어 입는 경우가 드물고, 탈상까지 지속적으로 입고 있어야 함으로 외관상 구김이 적고, 오염 부착이 적은 소재를 선택한다. 피부에 닿는 안감이나 속저고리, 속바지 등에 천연 섬유 소재를 사용하고 상복의 걸감 소재와 안감 소재를 구분하여 위생적인 상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계절이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다. 현행 상복은 흰색과 검정색이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색을 근거한 색 이미지에서 회색기미의 톤, 어두운톤 인 색조를 부분적 적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무채색을 다른 색과 배색하면 자연적이고, 우아하며, 고전적이며 운치 있는 이미지를 표현 하며(이재만, 2007), 검정색과 흰색의 배색은 고전적인 배색이고, 같은 색상에 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통일감을 표현하고, 또한 색상과 톤 모두가 유사한 배색으로 하여, 미세한 차이로 한 가지 색의 느낌이 나도록 시도 해 본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무채색은 도시적인 세련미, 품위,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일상복식에 긍정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다(강경자, 정수진, 2007).

본 연구자는 현대적인 여자 상복 디자인 제안을 형태와 색상, 소재 등으로 구분하여 디자인 I에서 디자인Ⅶ의 계획표를 <표 5>로 제시한다.

IV. 결론

현대 행해지는 상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소화 되고 있다. 상제(喪制)는 상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복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 상업화된 상복을 장례업체가 제시하는 가운데서 선택하여 입고 있는 실정이다. 상복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전통 상복에 관한 연구, 상복의 변화, 현행 상복의 문제점을 제시, 전통 상복의 보전방안 연구 등이 제시되었다. 현대 상례에서는 전통 상례의 오복제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복제도에 맞는 삼베를 사용하여 전통 상복을 제작하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자 상복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삼베로 된 전통식 상복은 찾는 소비자가 없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자 상복의 형태는 치마, 저고리 형과 개량 형, 양장 형 상복으로 구분되어 있고,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된 흰색과 검정색이 상복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자는 절차와 형식보다는 상례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예를 갖춘 현대적인 여자 상복 디자인 제안하고자 상징성, 장식성, 활동성, 경제성, 실용성, 다양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의와 하의, 원피스 형으로 구분하고, 형태와 소재, 색 톤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전통상복 구성에 표현된 의미 전달을 현대 상복에 표현 하였다. 부관과 눈물받이 등을 상복에 부착하여 슬픔을 표현 했듯이 효(孝), 애(哀), 경(敬), 염원(念願), 애(愛) 등의 내면적인 상징을 한국 전통 문양으로 현대 상복에 표현하고, 끝동과 깃, 치마 단, 거들지, 끈 등에 나염과 자수 등으로 한복의 장식성이 표현 되도록 하였다.

둘째, 상복에 시대성을 반영하여 상복의 디자인 변화를 시도했다. 기존 상복과는 차별화를 두어 활동성과 실용성, 경제성을 갖추도록 상의(저고리) 디자인에 있어서, 저고리 길이를 허리선 아래까지 내려 저고리 길이가 짧아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저고리에 옆트임을 주어 저고리 도련의 선이 외관상 단정한 차림이 되도록 하였다. 저고리 품은 앞 겹침을 두어 벌어지지 않게 하며, 배래선을 직선에 가깝게 하고, 저고리의 트임은 매듭단추나 일반단추로 고정하며, 뒷 트임은 지퍼를 사용했다. 하의 디자인에 있어서, 치마의 형태는 현대적으로 주름이 없는 쪽 치마와 외주름과 게더의 주름치마로 구분하고, 발등까지 내려오는 길이와 종아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구분, 바지 형태는 치마 입은 느낌이 나도록 통을 넓게(divided skirt) 하였고, 바지 부리선 일부에 주름 주었다. 원피스 디자인에 있어서, 랩 치마 형식과 주름이 없는 A-line형태의 원피스로 바지 위에 입게 하였다. 소매 달린 원피스와 소매를 달지 않은 원피스로 구분하여 T셔츠나 블라우스로 위에 착용하거나 곁에 저고리를 더 입을 수 있게 하였다. 길이도 발등까지 내려오는 길이와 종아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구분 하였다. 또한 상복에 주머니, 지퍼, 매듭단

추, 고무줄 등 현대적인 디테일을 사용하였고, 거들지, 고름, 끈, 이중 깃 등은 탈. 부착이 가능하게 하여 활동성, 경제성, 실용성을 강조 하였다.

셋째, 다양성을 추구하여 소재와 색상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소재를 계절에 맞게 선택하고, 걸감은 구김이 덜 가는 혼용된 소재와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신축성이 있는 소재 등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기존 상복은 상하 같은 색상으로 검정색과 흰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인 상복 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는 회색기미의 톤, 어두운 톤으로 무채색(無彩色)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디자인 형태라도 명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느낌이 표현되도록 상복의 색상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는 상징성, 활동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현대적 여자 상복 디자인을 제안으로 국한하였으나 재단법, 바느질 방법 등 구성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물 제작을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경자, 정수진. (2007). 무채색과 유채색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 9*(3), 19-34.
- 권이순. (2002). *주자가례 정칙화에 따른 상복변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상. (2014). *예서에 나타난 의례복식 재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6). 실물제작을 통한 전통상복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2), 49-59.
- 문화포털. (2015.12.01). 한국전통문양, 자료검색일 2015.12.01, 자료출처 <http://www.culture.go.kr/tradition/pattern.do?type=E>
- 박선영. (2001). *전통한복구성학*. 서울: 수학사.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자료검색일 2015.11.21, 자료출처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15659&page=1
-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자료검색일 2015.10.22, 자료출처 <http://www.ehaneul.go.kr/contentsS.do?id=M010202003#s22>
- 보람상조, 자료검색일 2015.10.31, 자료출처 <http://www.boram.com/product/funeral/premium490.do>
- 삼성서울병원, 자료검색일 2015.10.31, 자료출처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funerals/service.do?view=mourning>
- 손경희. (2001). *조선시대 상례복식의 현대적 이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름다운 우리옷. (1994. 11), p. 64-66. 서울: 월간아름다운 우리옷.
- 윤은영. (2004). *현행 상례의식에 나타난 상복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인. (2005). *조선시대 의례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만. (2007). *컬러 배색 코디네이션*. 서울: 일진사.
- 정옥임. (2004). 상복에서의 상징성 연구. *한국복식학회, 54*(4), 55-62.
- 정혜린. (2004). 한국 전통 상복과 현대의 상복 변화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7*(3), 17-25.
- 조우현. (1990).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희. (1999). *주자가례(임민혁 역)*. 서울: 예문서원.
- 한상일. (2011). *상복의 구성과 상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15.10.22,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7059>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패션상품개발을 위한 Fashion & Color*.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